

# 이란·이라크 終戰과 국제 석유시장 전망

金 乾 洽  
(本誌 편집인)

## 1. 머리말

이란, 이라크가 지난 8월 20일을 기해 마침내 휴전에 들어갔다. 지난 8년간 교전국 쌍방에 각각 1백만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이란-이라크전쟁이 종식됨으로써 세계의 눈은 다시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포스트 이란-이라크전의 복구사업과 또 그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유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 석유매장량의 70%를 부존하고 있고, 또 세계석유수요의 4분의 1을 공급하고 있는 페르시아灣에서의 평화회복은 우선 국제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국제경제의 경색을 푸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란-이라크戰의 종식은 그동안 위협받아온 中東원유공급이 안정성을 회복하게 됨을 의미하며, 또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활성화에도 하나의 좋은 好材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 2. 終戰이 세계油價에 미치는 영향

지금 세계의 관심은 우선 국제원유가격동향에 모아지고 있다. 세계석유전문가들의 예측은 엇갈리고 있다. OPEC(석유수출국기구)회원국의 결속강화로 가격이 지금 수준보다 오를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란, 이라크 양국이 戰災복구와 경제재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증산을 도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공산이 많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간의 국제원유수급사정과 시장동향으로 보면, 前者 보다는 後者가 보다 설득력있는 예측이다. 국제유가는 일시적으로 약간 고개를 들지 모르지만 길게 보아서 내릴 공산이 짙다. 그것은 OPEC회원국의 결속이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것이며, OPEC산유국의 시장점유율이 과거와 다르고, 또 세계석유소비증가율이 극히 완만하기 때문이다.

이란-이라크戰의 종식은 수급구조상 석유의 공급과잉시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장기적으로 국제유가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란·이라크의 휴전은 OPEC의 결속력측면에 대해 반드시 플러스요인만은 되지 않으나, 유가하락이 지속된다면 OPEC의 영향력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산유량 감축

등 응집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도 국제유가는 과잉재고로 인하여 배럴당 18달러의 고정유가를 크게 밀돌 것으로 전망된다.

自由世界 石油 수급

(單位 : 백만B/D)

|            | 1987 |      |      |      |      | 1988 |      |
|------------|------|------|------|------|------|------|------|
|            | 1/4  | 2/4  | 3/4  | 4/4  | 年間   | 1/4  | 2/4  |
| 消費         | 49.4 | 47.6 | 48.5 | 49.9 | 48.8 | 50.4 | 48.6 |
| 供給         | 46.9 | 47.8 | 50.3 | 50.6 | 48.9 | 49.0 | 49.8 |
| 非 O P E C  | 25.4 | 25.1 | 25.3 | 25.9 | 25.4 | 26.0 | 25.5 |
| 共產圈 수출     | 5.5  | 5.9  | 6.0  | 6.0  | 5.9  | 5.6  | 5.9  |
| O P E C 原油 | 16.0 | 16.8 | 19.0 | 18.7 | 17.6 | 17.4 | 18.4 |
| 在庫 變動      | -2.5 | +0.2 | +1.8 | +0.7 | +0.1 | -1.4 | +1.2 |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OPEC 산유국과 原油生産추이

(單位 : 百萬B/D)

|           | 1988 하반기<br>쿼터 | 1988 原油生産 (추정) |      |      |
|-----------|----------------|----------------|------|------|
|           |                | 4月             | 5月   | 6月   |
| 쿼터參加國     | 15.060         | 15.5           | 15.9 | 15.8 |
| 사우디아라비아   | 4.343          | 4.3            | 4.4  | 4.5  |
| 이란        | 2.369          | 2.2            | 2.2  | 2.1  |
| 쿠웨이트      | 0.996          | 1.1            | 1.2  | 1.4  |
| 아랍에미리트    | 0.948          | 1.3            | 1.4  | 1.3  |
| 카타르       | 0.299          | 0.3            | 0.3  | 0.3  |
| 베네수엘라     | 1.571          | 1.6            | 1.6  | 1.5  |
| 나이지리아     | 1.301          | 1.3            | 1.4  | 1.4  |
| 리비아       | 0.996          | 1.0            | 1.0  | 1.0  |
| 인도네시아     | 1.190          | 1.2            | 1.2  | 1.2  |
| 알제리       | 0.667          | 0.7            | 0.7  | 0.6  |
| 가봉        | 0.159          | 0.2            | 0.2  | 0.2  |
| 에콰도르      | 0.221          | 0.3            | 0.3  | 0.3  |
| 쿼터不參國     |                |                |      |      |
| 이라크       | 2.369          | 2.6            | 2.6  | 2.8  |
| O P E C 計 | 17.429         | 18.1           | 18.5 | 18.6 |

또 석유수급구조면에서 볼 때, 페르시아灣의 긴장해소는 비상대책용 석유구매의 감소등 수요축소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공급면에서는 이란의 증산등 공급확대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OPEC의 초과공급량은 현수준(약 1백만B/D)의 두배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란-이라크戰 종식에 따른 석유공급확대효과는 약 80만B/D로 전망된다. 이란의 산유량은 현재 2백20만 B/D 수준이나, 향후 3개월내에 3백만B/D 수준까지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생산능력은 3백40만B/D이며, 최대생산가능량은 3백만B/D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라크는 현재의 생산능력을 최대로 가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산유량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산유쿼터협정을 주로 위반하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등도 종전이 되면 물량을 감축하겠다는 의사를 한번도 밝힌 바 없다.

또 이란·이라크의 휴전후 정유사들의 석유구매전략은 첫째, 유가상승을 예상할 경우 早期구매 실시, 둘째 유가 하락을 예상할 경우 연기구매 실시, 세계 시장추이 관망 후 전략수집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 전략의 복합적 효과로서 국제석유시장은 단기간이지만, 수요감소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예를 보면 호메이니 사망 설등 정치적 충격은 석유구매물량의 감소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의 향후 석유정책은 이란의 태도 여하에 따라 유가인상을 유인하거나 또는 인하하는 양면성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란이 휴전협상에서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다른 OPEC 회원국들이 현재의 물량확대정책을 포기, 쿼터준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움직임을 보일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의 결속력, 즉 유가회복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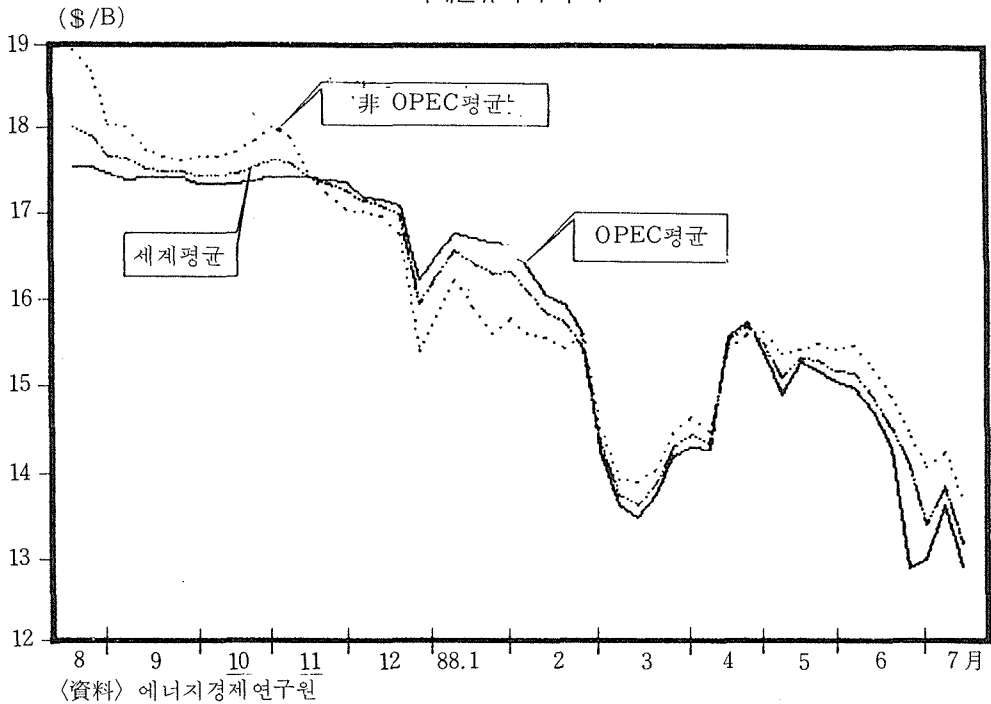
그러나 이란이 휴전협상에서 이라크를 침략자로 규정하거나 무리한 보상요구를 주장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는 휴전 이전처럼 유가약세를 방임하거나 공급물량을 확대, 유가약세를 더욱 심화시켜서 이란을 곤경에 처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란·이라크가 휴전했다고 해서 OPEC가 곧바로 재결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가가 배럴당 12달러 수준으로 하락한다면 OPEC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로 유가회복을 위한 응집력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OPEC의 단결은 쿼터준수, 즉 산유량감축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국제유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

망되나 현재의 재고과잉으로 인해 배럴당 18달러의 고정 유가를 밀도는 약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국제원유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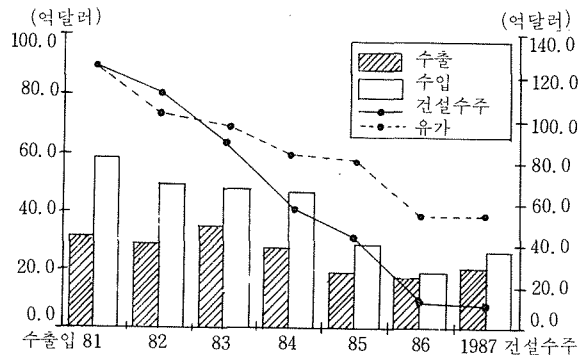
### 3.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재 우리나라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원유 및 제품은 1988년 기준으로 하루 소요량 62만7천B/D의 42.6%인 26만7천배럴로서 이란·이라크전의 종식은 그동안 위협받아온 中東원유공급이 안전성을 회복함을 의미한다.

또 이란·이라크전의 종식은 우리나라에 제2의 중동붐이 다시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팽배에 따른 원화절상의 가속화, 노사분규에 따른 임금상승압력등으로 하반기 경기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이 무성한 상황에서 中東戰의 종식은 국내 산업전체에 메가톤급 好材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東歐圈 및 中東과의 교역이 현실적으로 진행과정에 있는 이 시점에서 中東의 방대한 시장의 추가는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여유있는 대응과 합

계 상당한 경쟁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中東과의 건설수주 및 교역관계



註: ① 한국무역협회, 「국내의 경제동향」'88. 7.  
 ② 해외건설협회, 「건설수출 현황」 각호  
 ③ 유가: Brent유 기준 (\$/b)

中東과의 교역관계

(단위 : 천B/D, 천달러)

|          | 산유량    | 수 출    | 수 입     | 주 요 품 목(수출/수입)             |
|----------|--------|--------|---------|----------------------------|
| 알 제 리    | 650    | 1,052  | 99,007  | 섬유류, 타이어 / 석유, LNG, 알루미늄   |
| 이 집 트    | 774    | 124    | 70      | 섬유류, 전자, 철강, 타이어 / 원유, 원면  |
| 이 란      | 2,150  | -      | -       | 공식통계 미발표                   |
| 이 라 크    | 2,650  | -      | -       | 공식통계 미발표                   |
| 쿠 웨 이 트  | 1,250  | 188    | 160     | 섬유류, 철강제품, 타이어, 선박 / 원유    |
| 레 바논     | -      | 29,459 | 939     | 섬유류, 철강제품, 타이어, 전기제품 / 은·동 |
| 리 비 아    | 1,000  | 220    | 112     | 섬유류, 철강제품, 타이어, 전기제품 / 원유  |
| 몰 타      | -      | 5,380  | 27      | 철강제품, 타이어, 자동차 / 특수직물      |
| 카 타 르    | 300    | 14     | 70      | 철강제품, 타이어, 자동차 / 석유        |
| 사우디아라비아  | 4,350  | 1,037  | 1,066   | 섬유류, 철강제품, 타이어 / 원유        |
| 수 단      | -      | 23,825 | 15,189  | 섬유류, 철강제품, 약제품 / 식물성수지·면   |
| 시 리 아    | 185    | 6,490  | 405     | 섬유류, 철강제품 / 당밀             |
| 튀 니 지    | -      | 7,521  | 91      | 섬유류, 전자제품, 기계류 / 납         |
| 아랍에미리트   | 1,305  | 300    | 502     | 섬유류, 철강, 자동차 / 석유·알루미늄     |
| 南 예 멘    | -      | 1,496  | 4,313   | 섬유류, 철강, 타이어 / 석유          |
| 기 타      | -      | 292    | 528     | 시멘트                        |
| 총 23 개 국 | 14,614 | 77,398 | 122,479 |                            |

<주> 수출입 은행 「국별경제요람」, 1988

Petroleum & Energy Intelligence Weekly, Inc., PIW, July 11. 1988.

<자료> 주간제일증권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되어야 할 전제가 상존해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이란·이라크 두나라의 재정이 전후복구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만큼 넉넉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다. 또한 공사대금을 직접 원유로 지급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우리의 원유처리 기술능력의 향상·제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공장등 산업복구시설을 위한 고급기자재의 부족,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와 같은 국내업체끼리의 과당경쟁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몇가지 전제들이 관련기업과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극복될 때, 이러한 결정적 好機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올림픽의 성공적 수행과

함께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의 전후복구사업추진과 본격적인 상품수입 재개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나, 이란경제가 궤도에 오를 경우, 상품수입부문 2백억달러, 기간산업확충을 위한 플랜트 프로젝트부문 22억달러, 건설부문 40억달러로 연간 총시장규모는 약 2백6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제반복구사업이 초기에 순조롭게 진행된 연후에는 총5백억달러 규모의 방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

이라크의 경우 전후복구사업에 따른 일반상품수입및 건설수요등 총체적인 시장규모는 단기간으로 볼 때, 이란시장규모에 거의 상응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이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규모가 될 것으로 평

가된다.

건설부문에서 전쟁복구사업의 우선순위 및 양국시장참여국들의 분야별 수주비율을 고려하여 진출유망분야를 살펴보면, 이란의 경우, 경제개혁과 경제보수파중 어느

쪽이 권력을 장악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라크의 경우는 권력구조개편에서 오는 급격한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라크의 우선순위별 有望전후 복구사업

| 순<br>위 | 이<br>라<br>크   | 이<br>란   |   |
|--------|---|--|---|
|        |   | 경<br>제<br>보<br>수<br>파  | 경<br>제<br>개<br>혁<br>파   |
| 1      | 석유 및 가스생산시설<br>석유수출시설, 가스관<br>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 석유생산 및 수출시설<br>가스생산 및 수출시설<br>정유공장   |   |
| 2      | 항만 및 부대시설, 발전<br>및 송배전시설, 시멘트공<br>장, LNG·LPG공장, 각<br>종 도로 | 항만 및 부대시설, 공업용수, 도로,<br>석유화학공장, 上·下水도, 발전소<br>및 송배전시설, 기존공장의 개·보수,<br>시멘트공장, LNG·LPG공장 | 농지개량, 관개시설, 서민주택, 上·<br>下水도, 국도 및 지방도로, 교육시설,<br>병원, 발전소 및 송·배전시설, 기존<br>공장의 개·보수, 중·소규모공장 건<br>설 |
| 3      | 댐, 관개시설, 주택, 병원,<br>공장                                    | 사무실, 창고, 공항, 병원, 교육시설  | 寺院, 각종 체육시설, 철도, 고속도로   |

<자료> 주간력키증권

終戰이후 이란·이라크에서의 유망수주국

|        | 이<br>란 <sup>1)</sup>  | 이<br>라<br>크 <sup>2)</sup>            |
|--------|-----------------------|--------------------------------------|
| 토<br>목 | 프랑스, 이탈리아, 韓國, 英國(中國) | 西獨, 韓國, 프랑스, 유고,<br>(터어키) (브라질) (印度) |
| 건<br>축 | 이탈리아, 스위스, 유고, 西獨     | 유고, 日本, 韓國, 이라크 (터어키)                |
| 특수·플랜트 | 프랑스, 西獨, 이탈리아, 日本     | 이탈리아, 日本, 西獨, 프랑스                    |
| 電氣·통신  | 日本,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 프랑스, 日本, 유고, 스위스                     |
| 용<br>역 | 日本, 西獨, 핀란드, 英國       | 이탈리아, 스위스, 英國, 西獨                    |

<주> 1) 1975~1987. 10까지의 공정별 4대 수주국임. 미국은 특수 플랜트 이외의 전부문에서 4위내에 들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제외되었음.

2) 1979~1987. 10까지의 공정별 4대 수주국임.

( )내의 국가는 4위권 밖에 있으나 전시하에 진출이 두드러졌거나 정치적 이유로 우대가 예상되는 국가임.

<자료> 주간력키증권

앞으로 이란·이라크의 석유생산 및 수출시설의 복구로 석유수출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대대적인 전후복구사업의 추진으로 양국의 건설공사발주는 이란이 92년

까지 4백23억달러, 이라크가 2백91억달러등 향후 4년동안 총7백1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이라크 양국을 제외한 中東산유국들의 발주는

이란·이라크의 산유량증대에 따른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소모전 지속시보다 오히려 둔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中東 전체의 건설발주는 이란·이라크의 급격한 발주신장에 힘입어 소모전이 지속되는 경우에 비해 연간 45억~100억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연간 이란이 100억달러, 이라크가 70억달러의 발주규모가 될 것으로 볼 때, 국내업체들의 양국에서의 수주액은 연간 30~40억달러의 신장이 예상되어 총수주액은 소모전 지속시보다 연간 26억~4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이라크 終戰時 우리나라의 建設受注展望

(억달러, %)

|       | 1989 | 1990 | 1991 | 1992 | 89~92計 |
|-------|------|------|------|------|--------|
| 中 東   | 37.9 | 45.7 | 56.5 | 66.4 | 206.5  |
| 이 란   | 15.4 | 16.8 | 19.4 | 22.2 | 73.8   |
| 이 라 크 | 8.7  | 10.4 | 13.0 | 15.4 | 47.5   |

<자료> 주간력키증권

4. 맺는말

이란·이라크戰의 종전은 당장에 국제석유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으나, 계속 유가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 양국도 OPEC의 단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당장 전후복구를 위해서는 석유를 더 팔아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결국 OPEC는 이란·이라크戰 종식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우선 이란·이라크戰이 종식되었으나 이란과

사우디·이라크그룹과의 뿌리깊은 반목은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로 인해 OPEC가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해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또 전후복구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이란·이라크가 산유쿼터를 무시한 증산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양국의 전후복구사업에는 앞으로 국제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웃 日本을 포함해서 美國과 西歐의 선진제국, 그리고 그밖의 많은 나라들이 각축을 벌일 것이다. 포성은 사라졌으며 복구의 과실을 취하려는 나라들의 각축전이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

□ 신간안내 □

The Petroleum Industry  
in Korea 1988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